

중국어 어법화 연구  
- ‘到’와 ‘在’의 품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

이 우 철\*\*

<目次>

I. 들어가는 말	III. 어법화와 그 기제
II. ‘到’, ‘在’의 품사 구분과 교육의 문제	1. 유추(Analogy)
1. ‘到’, ‘在’의 품사 구분 문제	2. 재분석(Reanalysis)
2. ‘到’, ‘在’와 교육의 문제	I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중국어에서 ‘到’와 ‘在’는 동사의 앞과 뒤에서 시공간을 표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성분의 성질 분류에 대해서는 학자 간에 이견이 많다.

(A)	(B)	(C)
到：到北京了	到我那兒談吧	送到我家門口
在：那本書在我那兒	在黑板上寫字	住在朋友家裏

위 (A), (B), (C)의 예에서 (A)에 쓰인 ‘到’와 ‘在’의 품사 분류에는 동사라는데 학자 간에 이견이 없다. 문제는 (B)와 (C)에 있다. 呂叔湘(1980)<sup>1)</sup>

\* 이 논문은 2010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이 논문에서는 1991년 본을 참고하였다. ‘在’에 대해서는 이 책의 571-574쪽

의 경우, (B)의 ‘到’는 동사, ‘在’는 전치사로 분류하였고, (C)도 ‘到’는 동사<sup>2)</sup>, ‘在’는 전치사로 분류하였다. 朱德熙(1982)<sup>3)</sup>의 분류는 이와 다르다. 그는 (B)의 ‘到’와 ‘在’는 모두 전치사로 분류하고, (C)의 ‘到’와 ‘在’는 모두 동사로 분류하였다.

이들 품사 구분 문제는 중국어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는 품사 분류로부터 문장의 구조 분석까지를 총망라하는 문제이다. 呂叔湘의 견해라면 (B)의 예시문은 연동구조가 될 것이고, 朱德熙의 견해라면 (B)의 예시문은 수식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품사문제부터 통사 분석까지 논쟁이 많은 이 문제는 우리의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쳐 통일되지 않는 내용이 타당한 설명 없이 그대로 교육에 반영되고 있다.

또 (C)의 예시문에 대해서는 그의 직접성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하여 특히 이견이 분분하다. (C)의 ‘到’를 앞의 성분과 결합하는 구조로 분석하여, ‘送到/我家門口’<sup>4)</sup>로 직접성분을 나누기도 하고, ‘到’를 뒤의 성분과 결합하는 구조로 분석하여, ‘送/到我家門口’로 분석하기도 한다. ‘在’의 경우도 이와 같다. 이 또한 무슨 문제인가 싶지만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래 예문(1)은 위 예시문 (C)유형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이 문장은 실제 2006년 중국어교사 임용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장이다. 문제의 요지는 ‘從’과 ‘到’의 품사 성질을 묻는 것이었다. 해답은 ‘從’은 전치사, ‘到’는 동사였다. 그러나 아직 ‘走到/百貨公司’인지 ‘走/到百貨公司’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고, 또 ‘走到/百貨公司’로 분석하더라도, ‘走到’의 ‘到’에 대

을 참고하고, ‘到’에 대해서는 이 책의 127, 128쪽을 참고할 것.

- 2) 呂叔湘은 (C)의 ‘到’를 원래 동결식(動結式)으로 분류하였으나, 陳高春(1995, 584)에 의하면 동결식이라 함은 “주요동사에 결과를 표시하는 동사나 형용사를 더한 구조”를 말하는 것이므로, ‘到’를 동사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主要動詞加表示結果的形容詞或動詞, 可以叫做動結式”, 陳高春主編, 《實用漢語語法大辭典》, 中國勞動出版社, 1995.
- 3) 朱德熙(1982, 130, 132, 174, 175, 182-185)를 참고할 것.
- 4) ‘送到/我家門口’에서 사선 ‘/’는 ‘送到’와 ‘我家門口’가 직접성분 관계임을 표시한다. 이하에서도 이와 같다.

해서 ‘전치사’라는 주장과 ‘동사’라는 주장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출제에서 지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sup>5)</sup>

- (1) 我跟我弟弟從學校走到百貨公司。(나는 내 남동생과 학교에서 백화점까지 걸어갔다.)

이 논문의 목적은 상기한 문제의 본질이 ‘到’와 ‘在’와 같은 구체적 단어의 품사를 어떻게 구분하여 명명해야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이견이 분분한가에 대하여 그 근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논쟁들로서, 앞으로도 이 논쟁이 조만간에 없어질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본문은 ‘到’와 ‘在’의 품사 구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는 이론적 근거와 원인을 살펴보고, 교육의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동시에 어법화 이론의 각도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을 시도하고자 한다.

## II. ‘到’, ‘在’의 품사 구분과 교육의 문제

### 1. ‘到’, ‘在’의 품사 구분 문제

‘동사+到’ 구조와 관계된 기존의 논의에서 진행된 논쟁과 그 주요 관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呂叔湘(1980)과 朱德熙(1982)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주의할 점은 朱德熙는 (C)의 ‘到’와 ‘在’를 모두 앞에 귀속시켰고, 그 중 ‘到’의 예를 분석하여 ‘送到/我家門口’로 직접성분을 이분하였다. 이와 달리 呂叔湘

5) 자세한 논의는 제2장 2절에서 이어질 것이다.

의 경우는, ‘到’는 동결식으로 분석하여 朱德熙와 같지만, ‘在’에 대해서는 다르게 분석하여, ‘住/在朋友家裏’로 그 직접성분을 이분하고 있다. 전자와 같이 직접성분을 나누었다는 것은 동보구조인 ‘送到’가 목적어 ‘我家門口’와 결합하는 것으로 분석한 것이고, 후자와 같이 직접성분을 나누었다는 것은 전치사 구조인 ‘在朋友家裏’가 그 앞의 동사 ‘住’의 보어를 담당한다고 분석한 것이다.

呂叔湘과 朱德熙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장이 이미 이른 시기에 제시되었다. 羅開農(1980)은 ‘到’를 ‘형태소, 동사, 전치사’의 세 가지로 세분하였고, 陳永生(1981)은 이 세 가지 구분설을 부정하여 ‘동사’로 일원화하였다. 李曉琪(1982)는 ‘動詞+到’의 ‘到’가 앞에 속하면 그 ‘到’는 동사로서 동사와 동보구조를 이루고, ‘到’가 뒤에 속하면 그 ‘到’는 개사가 되어 후속되어 오는 성분과 개사구조를 이룬다고 하였다.

위 ‘들어가는 말’에서 예시한 (A), (B), (C)와 결부시켜 설명하면, 羅開農은 (A)의 ‘到’는 동사로, (B)의 ‘到’는 전치사로, (C)의 ‘到’는 접미사의 형태소로 분류하였고, 이에 대해 陳永生은 (A), (B), (C)의 ‘到’가 모두 동사라고 반박하여 주장한 것이다.

陳永生은 반박의 근거로 음성적인 것과 통사적인 것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두 가지는 최근까지도 ‘到’를 동사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로 든 음성적인 근거라는 것은 바로 독법(讀法)의 문제이다. 즉 어디에 휴지를 두고 읽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는 음성적인 휴지가 모두 ‘到’의 뒤에 둔다는 사실을 근거로 ‘동사+到’가 하나의 온전한 결합체임을 주장한 것이다. 다음은 그가 든 예문이다.<sup>6)</sup>

6) 陳永生(1981)의 이 글은 1980년 제8기의 《重慶師範學院學報》에서 게재되었던 羅開農의 《談談動詞謂語後面的“到”的性質和作用》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예문은 원래 출처는 羅開農(1980)에서 온 것이다.

- (2) 他/一直走到/天明。(그는 날이 밝을 때까지 걸었다.)  
 張老/活到/八十歲。(장라오는 80세까지 살았다.)  
 他/逃跑到/重慶。(그는 충칭까지 도망갔다.)  
 旅客們/擁擠到/窗前。(여행객들은 창문 앞으로 몰려들었다.)

둘째로 든 근거는 통사적 조합의 문제였다. 통사적인 면에서 ‘동사+到’의 뒤에는 시대조사 ‘了’를 동반할 수 있어서 ‘到’를 전치사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가 든 예문이다.

- (3) 國民黨的軍隊被趕到了偏僻的地區。(국민당의 군대는 편벽한 곳으로 쫓겨났다.)  
 我們的軍隊發展到了九十萬。(우리의 군대는 90만으로 발전했다.)

陳永生の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뒤에 ‘了’와 결합이 안 되는 ‘Vx’도 존재하고, 연구자 중에 이를 전치사 구조 ‘x+후속성분’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 2. ‘到’, ‘在’와 교육의 문제

1) 통일되지 않는 내용이 그대로 중국어학 교재에 반영된다.

이렇듯 논쟁이 많은 내용들이 통일이 되지 못한 채 중국어 교육 현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어학관련 서적에 반영된 내용이다.

① 相原茂(2013, 132, 134)는 ‘到’에 대해서 전치사로 분류하고 장소·방향을 나타내는 예와 시간을 나타내는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 (4) a. 他們到中國去旅行。(그들은 중국으로 여행을 간다.)  
 b. 新建的宿舍到月底可以竣工。(새로 짓는 숙소는 월말이면 준공된다.)

- (5) a. 這種衣服在北方流行。(이런 옷은 북방에서 유행한다.)  
 b. 火車在六點鐘通過這座橋。(열차는 6시에 이 다리를 지난다.)

예문 (4)는 ‘到’, 예문 (5)는 ‘在’에 대한 예문을 든 것으로, 예문 (4), (5)의 ‘a’는 ‘장소·방향’을, ‘b’는 ‘시간’을 표시하고 있다. 相原茂의 설명처럼 예문의 ‘到’는 종점·도착지를 표시하며, ‘~까지, ~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이다. 그러나 呂叔湘(1980)에 의하면 예문 (4)에 쓰인 ‘到’는 모두 동사로서 문장에서 연동구조의 술어를 이룬다.

② 《中國語學概論》(放送通信大學校出版部 2004년본, 190)이 전치사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到’를 전치사로 분류하고 아래와 같은 예를 들었다. 이는 ‘從’은 시간이나 장소의 출발점을, ‘到’는 도착점을 나타낸다는 대비적 각도에서 동일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가정한 설명으로 보인다.

- (7) a. 從這兒到北京站怎麼走?(여기서 북경역에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b. 他從1990年到1994年在上海做事。(그는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상해에서 일을 하였다.)

그러나 같은 책의 127, 130, 132쪽에서는 품사와 문장 성분의 대응관계를 우리말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중국어는 동사나 동사성 어구도 주어의 위치에서 주어가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다.

- (8) 聽音樂是我的嗜好。(음악을 듣는 것은 내 취미이다.)  
 學漢語很有意思。(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매우 재미있다.)

예문 (8)에서 ‘聽音樂’, ‘學漢語’는 각각 후속하는 성분들에 대한 설명의 대상으로 주어(혹은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말로는 ‘~것’으로 명사화시켜서 주어가 되고 있지만, 중국어는 형태에 변화를 주지 않은 채로 주어가 되는데, 이를 명물화<sup>7)</sup> 현상이라고 한다. 품사구분의 기준으로 통사기능을

우선시하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예문 (8)의 명물화된 주어의 입장에서 보면, 위의 책이 예문 (7)에서 ‘到’를 전치사로 분류한 데에는 다시 고려해봐야 할 요소가 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7a)의 예문 ‘從這兒到北京站怎麼走’는 ‘從這兒到北京站’을 명물화된 주어(혹은 화제)로, 나머지 부분을 술어(혹은 평언)로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예문 (7b) ‘他從1990年到1994年在上海做事’ 문장의 ‘從1990年到1994年’는 문장에서 명물화 없이 부사어로 충당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문장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구절 단위가 아닌 문장 단위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원칙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sup>8)</sup> 즉, ‘從’과 ‘到’로 이루어진 어구가 전체 문장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 하는 점이 그들의 성질 규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문 (7)의 ‘從’과 ‘到’를 동일한 성질의 전치사로 분류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 예문들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

- (9) 從這兒走到學校至少要半個小時。(여기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데는 적어도 반시간은 걸린다.)
- (10) 從這兒到特洛伊城只有6公里路。(여기서 트로이성까지는 6Km밖에 안 된다.)
- (11) 從這兒到城裏火車站還有30多里。(여기서 시내 열차역까지의 거리는 아직도 30리가 더 된다.)
- (12) 從這兒到你的家還有幾站?(여기서 네 집까지는 몇 정거장이나 남았니?)

7) 範曉(1996, 470, 471, 476)는 명물화를 ‘動元化’로 명명하기를 선호한다. 동사와 강제적으로 의미관계를 형성하는 명사성 성분의 자리에 위치한 동사성 어구를 지칭하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즉, 동사성 주어에 명사격을 부여하는 의미상의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8) 石毓智(2001, 17)는 현대중국어 문장이 정보배열을 조직하는 방식을 소개하면서, 중국어는 ‘술어+결과’라는 어순정보배열의 원칙이 강하게 표출되는데,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단위는 문장 단위여야 한다는 점은 본문의 논지와 맥을 같이 한다.

예문 (9-12)에 쓰인 ‘從這兒走到學校’, ‘從這兒到特洛伊城’, ‘從這兒到城裏火車站’, ‘從這兒到你的家’는 모두 명물화된 주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 속에 쓰인 ‘到’는 모두 동사가 되어야 한다. 주지하듯이 전치사구는 주어라 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到’가 전치사라면 위에 쓰인 ‘從這兒走到學校’, ‘從這兒到特洛伊城’, ‘從這兒到城裏火車站’, ‘從這兒到你的家’는 모두 주어라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설명이 유효하다면 위의 책에서처럼 ‘從’과 ‘到’를 동일한 성질의 전치사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시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문장 분석의 단위는 문장이어야 한다는 원칙과 관계가 깊다. 다음 예문에서 이 원칙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13) 從早上工作到晚上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다)<sup>9)</sup>

於燕(2006)에 의하면 黃伯榮·廖序東의 《現代漢語》는 ‘從早上’은 전치사구로서 동사 ‘工作’의 앞에서 부사어로 중당되고 있고, ‘到晚上’ 역시 전치사구로서 동사 ‘工作’의 뒤에서 보어로 중당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黃伯榮·廖序東은 ‘從’과 ‘到’를 모두 전치사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분류 또한 예문 (13)의 환경 하에서는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從’과 ‘到’로 이루어진 구문들도 언어 환경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③ ‘Vx’로의 확장

‘Vx’라 함은 ‘Vx’에서 동사 ‘V’와 결합하는 ‘x’를 ‘在’, ‘給’, ‘到’, ‘於’, ‘以’, ‘向’, ‘往’, ‘自’ 등으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 사실 이는 언어의 ‘家族相似性(family resemblance)’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그 구조의 외연을 확

9) 예문 (13)은 사실 완전한 문장은 아니다. 하지만 ‘從’과 ‘到’ 사이에 동사 ‘工作’가 있어서 예문 (7)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언어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장시킬 수 있다. 국내 연구자들 중에서 ‘동사+x’와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연구한 학자는 金鐘讚을 꼽을 수 있다. 金鐘讚(2000, 2001, 2008, 2009, 2010, 2011)은 ‘Vx’에 대하여 ‘V’의 음절수와 ‘x’의 유형을 포함한 총체적인 연구결과로 다른 연구자들의 관련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의 이 일련의 연구 중에서 金鐘讚(2000)이 ‘동사+在’에서 ‘在’가 뒤의 후속성분과 결합하는 전치사라고 주장한 것을 빼면 줄곧 일관되게 ‘Vx’의 ‘x’가 그 앞의 성분인 ‘V’와 결합하는 전치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도 살펴 보았듯이 많은 학자들이 전치사 구조의 부사어와 전치사 구조의 보어를 언급하고 있고, 현재 국내 중국어학 교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니, 학술적 주장이 아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재고의 여지도 있다고 본다.

‘Vx’의 성질과 관련해서는 ‘x’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V’의 특성에 따라 그 전체 성질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아래를 통해 알 수 있다.

蕭紅(2011)은 “현대 중국어에서 동사+보어‘見’과 동사+보어‘到’는 의미의 표현이나 문체의 특징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 차이는 언어의 기원과 발달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曾海清(2007) 또한 ‘V+到’구조와 ‘V+進’, ‘V+見’, ‘V+在’, ‘V+著’ 등을 비교하며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V’의 대체능력을 기준으로 ‘V在’가 구인가 단어인가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V在’의 ‘V’의 결합 정도가 개방적이어서 그 대체 능력이 크다면, ‘Vx’는 구가 될 개연성이 크고, 그 반대이면 한 단어로서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전학에서 단어를 판별하는 기본적인 기준이다. 아래 예문 (14)는 모두 ‘V在了’의 예문들이다.

- (14) 那英不假思索地就把運氣擺在了第一位。(나영은 주저하지 않고 운을 제일 순위에 올려놓았다.)  
 走到村口, 我們已經吻在了一起。(마을입구에 다다랐을 때, 우리들은 이미 키스를 하고 있었다.)  
 美國宣布不參加會議的最後宣言, 把自己完全放在了孤立的地位。(미국

은 회의의 최종선언에 불참을 선포함으로써, 자신을 완전히 고립된 위치에 놓이게 하였다.)

殖民主義的枷鎖一個接一個套在了日本人民的身上。(식민주의 멍에가 하나하나 일본인민들에게 씌워지게 되었다.)

羅馬共和國存在了約五個世紀。(로마공화국은 약 5세기 동안 존재했다.)

위에 든 예문들은 ‘V在’의 ‘V’를 동사 ‘擺’, ‘吻’, ‘放’, ‘套’로 대체시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대체 능력이 큼을 잘 보여준다. 사전에는 당연히 밑줄 친 ‘擺在’, ‘吻在’, ‘放在’, ‘套在’를 단어로 수록할 이유가 없다. 다만 ‘存在’의 경우는 그 결합 정도가 매우 강하고 이분하였을 때 그들이(存, 在)가 각각 단어로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단위가 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단어로 볼 수 있다. 다음은 2006년 중국어교사 임용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예로 들어 ‘到’의 품사와 관련하여 교육이나 시험에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 <보기>의 어구를 한 번씩 사용하여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로 옮기고, 품사를 쓰시오. (단, ⊠ 표시를 한 곳에는 품사를 쓰지 말고, 품사는 명사, 대사, 형용사, 동사, 수사, 양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조사 등의 명칭을 사용할 것)

————— < 보 기 > —————

走 / 我 / 學校 / 百貨公司 / 到 / 從 / 跟 / 我弟弟
-------------------------------------

- 한국어: 나는 내 남동생과 학교에서 백화점까지 걸어갔다.

중국어	我	跟	我弟弟	從	學校	走	到	百貨公司
품 사	⊠	⊠	⊠	전치사	⊠	⊠	동사	⊠

빈칸에 알맞은 답을 이미 적어 보았다. 첫 번째는 ‘전치사’이고 두 번째는 ‘동사’이다. 이는 ‘到’를 동사로 판별하고, 그 동사가 결과보어로 기능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물론 이러한 견해가 우세한 것은 사실이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到’ 자체의 품사의 성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도 있고, 또 ‘V到’가 단어인지 혹은 단어의 조합인지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중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 III. 어법화와 그 기제

아래 인용문은 Marianne Mithun의 <통사적 변화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Functional Perspectives on Syntactic Change)>이라는 글이 《*Th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란 책에 한 챕터로 수록된 글이다. 이 글을 통하여 어법화의 기제인 유추, 재분석 그리고 재분석된 대상들의 외연적 확대 등에 대하여 그 유기적인 관련성을 살필 수 있다.

Hermann Paul's 1880 discussion of analogy and restructuring in grammatical change emphasizes the role of pattern recognition, reanalysis, and extension by both children and adults (Paul 1880).

헤르만 폴(1880)의 논의는 문법적 변화에서의 유추와 재구조화에 대한 ‘재분석, 유추가 아이 어른 모두에게 확대 적용’됨을 강조하고 있다.

Marianne Mithun(2004:552)의 이 말은 헤르만 폴(1880)이 당시에 이미 언어가 ‘유추’와 ‘재구조화’의 과정을 거치며 발생하는 ‘문법적인 변화’ 즉 어법화 현상이 존재하고 이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헤르만 폴(1880)의 논의는 문법적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통사나 형태의 ‘재구조화’와 ‘유추’에 대하여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패턴 인식’, ‘재분석’ 그리고 ‘패턴 확대’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어지는 Marianne Mithun의 설명에서도 드러난다.

The importance of the cognitive routinization of repeated tasks, resulting

in the grammaticization of frequently used syntactic and morphological structures, was appreciated by a number of early comparativists and discussed eloquently by Meillet in 1912.

반복되는 일에 대한 인지적 관습화는 자주 사용하는 구문과 어휘 구조에 대하여 어법화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 어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초기의 많은 비교 문법학자들이 인정하였고, 설득력 있게 논의된 것이 1912년 Meillet에 의해서이다.

어법화 현상과 그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 어법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법화란 용어가 Meillet(1912)가 처음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Marianne Mithun(2004:552)의 위 언급을 보면 사실 그 내용은 이미 19세기 말에도 인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어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어법화의 개념이 짝트게 된 시기와 그 기제를 알아보았다. 다음은 중국어의 어법화된 'Vx'와 그 기제로서의 유추와 재분석의 한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유추 (Analogy)

- (15) a. 中東和平進程走到了一個新的路口。(중동 평화 과정이 새로운 길에 접어들었다.)  
 b. 指導思想終於走到了符合中國拳手特點的正確道路上。(지도 사상이 결국 중국 권투 선수의 특성에 부합하는 올바른 길로 접어들었다.)  
 c. 傳統的發展模式已經走到了盡頭。(전통적인 발전 모델은 이미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d. 尤科斯公司已經走到了盡頭。(유코스 회사는 이미 갈 데까지 갔다.)

예문 (15)에 든 예들은 모두가 '동+보(Vx)'구조의 구체적인 예로 '走到了'가 쓰인 구문들이다. 특이한 점은 원래 '동+보'구조에서 'V'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동사성이 강한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15)에 쓰인 동사 '走'는 동사의 원래 동작성은 강하지만, 문장 속에서는 실제로 '걷다'라는 동작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15a)의 ‘중동 평화 과정(中東和平進程)’이 동사 ‘走’의 동작성과 실제적인 의미 구조를 맺을 리 만무하다. (15b)의 ‘지도 사상(指導思想)’ 역시 동사 ‘走’의 동작성과 실제적인 의미 구조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5c)의 ‘전통적인 발전 모델(傳統的發展模式)’도 마찬가지이다. (15d)의 ‘유코스 회사(尤科斯公司)’가 ‘走’라는 동작을 하기도 만무하다. 이에 반해 앞서 들었던 예문 (9), (13), (14)의 예들에서는 모두가 동작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15)에 쓰인 예문들의 정보 배열을 ‘설명 대상+설명+처소 목적’으로 귀납할 수 있다. 특이한 사실은 이들 정보 배열 조합에서 ‘설명 대상’과 ‘처소 목적’을 연결시켜주는 ‘走到了’의 동사인 ‘走’가 본래의 동사가 가지는 의미가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추상적인 연결에 의해서 ‘설명 대상’과 ‘처소 목적’이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바로 ‘유추’라고 판단하며, 그 원리는 인지의 방법인 ‘은유’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은 예문 (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유추에 의해서 언어는 더욱 풍부해지고 세밀해지게 된다. 이러한 유추는 특정 구조에 대한 재분석의 가능성을 가져오고 결국 그 특정구조는 어법화를 이루게 된다. 石毓智(2004, 2)가 어법화를 정의하면서 언급한 바도 바로 이 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어법화란 새로운 어법수단이 발생하는 과정으로 어법수단은 어법 표기와 어법구조의 두 가지를 포함한다. 중국 어법사에서 어법화 과정은 왕왕 새로운 표기와 새로운 구조의 탄생을 가져오는데, 이들은 동일한 변화의 두 가지 측면이다.” (語法化— 一個新興語法手段產生的歷史過程。語法手段包括語法標記和語法結構兩大類。在漢語語法史上，一個語法化過程往往同時涉及到新標記和新結構的產生，兩者經常是同一變化的兩個方面。)

## 2. 재분석(Reanalysis)

앞서 예문 (7)을 설명하면서 ‘到’의 품사성질을 결정하는 데는 ‘到’가 기

능하는 문법성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到’가 주어로서 기능할 경우는 당연히 그 품사성질은 동사가 되어야 한다.

- (16) a. 每天早上從大學走到High Five體育館的路上, 我們都看到戰鬥機起降。(매일 아침 대학에서부터 하이파이브 스타디움까지 가는 길에서 우리는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것을 보곤 한다.)  
 b. 鋁之所以從高貴走到民間, 完全是電的功勞。(귀했던 알루미늄이 민간에서 사용할 정도가 된 것은 완전히 전기분해의 덕분이다.)  
 c. 中東和平進程走到了一個新的路口。(중동 평화 과정이 새로운 길에 접어들었다.)

예문 (16a)의 ‘走到’는 아스팔트를 걷는 언어 환경에서 ‘走’가 동작의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본문의 문제제기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경우의 ‘到’는 앞의 ‘走’와 결합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후속하는 명사와 결합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6b)는 어떤가? (16b)의 언어 환경에서는 ‘走’가 이미 동작의 의미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到’가 후속 명사 ‘民間’과 결합하여 방향이나 도착지점을 표시하는 전치사로 기능할 가능성이 없어졌다. 더군다나 (16b)의 ‘走到’는 주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기능하며 의미로는 명물화 되어 ‘(알루미늄이 귀했다가 보편적으로 된)원인’을 표시해준다. ‘到’가 전치사로 기능할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16c)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16c)에서는 ‘走到’가 한 단위가 되어 ‘了’와 결합하고 있다. 이 경우 ‘到’는 전치사일 수가 없다. 따라서 ‘走/到목적어’로도 분석되었던 것은 이제 ‘走到了/목적어’로 재분석하게 된 것이다. (16a), (16b), (16b)는 ‘Vx’의 구체적인 예로 ‘走到’를 든 것이다. 이때 ‘走’는 실제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까지 다양하게 쓰이면서 ‘Vx’란 조합으로 사용자들에게 인지되게 된다. 즉 은유적 사고에 근거한 개방적 언어 조합의 결과로 ‘Vx’와 같은 조합이 나타나고, 사용자들이 이 조합을 습관적으로 쓰면서 이 조합에 대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분석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분석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는 ‘走/到+목적어’로 분석되었던 구

조가 ‘走到/목적어’로 재분석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走到’다음에 ‘了’가 결합하고 다시 ‘목적어’를 가지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走到/목적어’로 재분석하게 된 것이다. (15), (16)에서 보여준 유추와 재분석은 ‘Vx’와 ‘Vx’ 중의 ‘x’의 어법화의 기제가 된다.

#### IV. 나가는 말

본 논문에서는 ‘到’와 ‘在’의 품사 문제를 고찰한 후 그들의 품사 구분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중국어 어법화와 어법화 기제인 유추, 재분석, 확대를 통하여 그 속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 본 논문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하여 통일되지 않은 내용이 중국 어학 교육현장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교육되고 있으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중요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살펴본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1912년 Meillet에 의해 ‘어법화’란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에 이미 어법화 현상에 대한 인식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2. 원래 동사였던 ‘到’와 ‘在’를 전치사로 분류한 것은 어법화 현상으로 재분석의 결과이다.
3. ‘Vx了’의 구조에 쓰인 ‘到’와 ‘在’를 다시 동사로 분류하는 것 또한 재분석의 결과이다. 이들 동사와 ‘V’가 표시하는 동작과의 의미 관계는 언어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4. ‘V到’, ‘V在’의 ‘到’, ‘在’에 대한 재분석의 결과를 ‘V於(於)’ 등의 ‘Vx’로 일반화시켜 확대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이론적 근거가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 이 논문에서 예시한 예문들 중에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 ‘북경대학 코퍼스’의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찾은 것들이다.

\* 몇 가지 국내의 중국어 회화교재나 어법교재를 본문에서 언급하였으나, 참고문헌에는 일일이 수록하지 않았다.

<參考文獻>

- Hopper, p. & Traugott, E.,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Marianne Mithun, Functional Perspectives on Syntactic Change, in Joseph, Brian D. and Richard D. Janda, Th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Blackwell Publishing, 2004, 552-572.
- 金鐘讚, <介詞‘到’的研究>, 《國際中國學研究》 29, 2001.
- 金鐘讚, <「再論」“雙音動詞+在”結構>, 《中國學論叢》 32, 2011.
- 金鐘讚·賈寶書, <論“雙音節動詞+在”結構>, 《中國語文學》 53, 2009.
- 金鐘讚·黃樹先, <“V在”結構研究>, 《中國文學研究》, 2008,
- 金鐘讚, <論“介賓結構作補語說”>, 《中國語文學》 36, 2000.
- 劉鑫民, <時序原則和動元、狀元的配位.>, 《雲南師範大學學報》 4, 2003.
- 李曉琪, <說說“動詞+到”>, 《漢語學習》 1, 1982.
- 孟萬春, <介詞結構“在+處所”句中分布的制約因素>, 《重慶社會科學》 10, 2006.
- 朴正九, <現代漢語介詞短語的分布類型及其語法條件>, 《紹興文理學院學報》 3, 2006.
- 范曉, 《三個平面的語法觀》,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6.
- 相原茂·石田知子·戶沼市子 著, 김준현 감수, 박귀진·민병석 해설(2001), 《중국어문법책》, 시사중국어사, 2013년 개정2판.
- 石毓智, 《語法的形式和理據》, 江西教育出版社, 2001.
- 石毓智·李訥, 《漢語語法化的歷程》, 北京大學出版社, 2004.
- 於燕, <對“V+到+NP”及“到”的分析>, 《甘肅聯合大學學報》 4, 2006.

- 呂叔湘(1980),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1991년 분.
- 吳金花, <處所介詞“到”的產生>, 《福建師範大學學報》 4, 2005.
- 吳福詳, <近年來語法化研究的進展>, 《外語教學與研究》 1, 2004.
- 吳福詳, <漢語伴隨介詞語法化的類型學研究>, 《中國語文》 1, 2003.
- 王偉, <論“在”的語法化>, 《西安外國語大學學報》 3, 2009.
- 윤유정, <허화 및 어법화의 개념과 과정>, 《中國語文學論集》 29, 2004.
- 張瑩, <“V到”結構研究>,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2003.
- 刁晏斌, <當代漢語語法化論略>, 《通化師範學院學報》 1, 2005.
- 趙元任著(1968)·呂叔湘譯, 《北京口語語法》, 商務印書館, 1979.
- 朱德熙,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1982.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纂室編, 《現代韓語詞典》, 商務印書館, 2005年 第5版.
- 曾海清, <現代漢語V到”與“V進、見、在”、“V著”結構的比較>, 《新餘高專學報》 6, 2007.
- 何洪峰·金鐘讚, <論“V在”結構及句法分析>, 《중국어학연구》 51, 2010.
- 邢志群, <漢語動詞語法化的機制>, 《言語學論叢》 8, 2003.

### <中文提要>

本论文在考察了‘到’和‘在’的词性问题后，以其词性划分相关的现存问题为中心，通过汉语语法化及其类推，重新分析，扩大机制，试图寻究并说明其中的原因。同时，本论文中提到的问题中一部分尚未统一的内容，明确地反映在中国语法教育实践活动中，而且也观察到这些问题常出现在重要考试中。其主要内容概括如下：1. 根据1912年Meillet的观点可以看出：‘语法化’这一术语正式开始使用以前，对语法化现象就已经有了认识。2. 本来是动词的‘到’和‘在’被划分为介词，这是作为语法化现象再分析的结果。3. 用於‘Vx了’结构中的‘到’和‘在’又被划分为动词，这也是重新分析的结果，而且‘x’和

‘V’的语义关系只有在具体的语言环境中才能决定。4. 为了把‘V到’, ‘V在’中的‘到’, ‘在’重新分析的结果作为‘V於(於)’等结构的‘Vx’, 使之一般化, 使之扩大, 首先应该摆出具有说服力的理论依据。

Key Words : 중국어(Chinese), 어법화(Grammartialization), 재분석  
(Reanalysis), 유추(Analogy), 到(dào), 在(zài)